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0월 16일(금) 조간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10월 15일(목)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

- 국고채금리는 중동불안 지속 및 국제유가 상승,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강화,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채권 시장 수급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
-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, 중동전쟁 전개 상황,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하다가 10월 들어 AI 투자 둔화 및 반도체 경쟁심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
- 9월 은행대출은 가계대출(26.8월 +3.5조원 → 9월 +0.6조원)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, 기업대출(+9.7조원 → +10.7조원)은 증가폭이 확대
- 9월 금융기관 수신은 은행(26.8월 +0.1조원 → 9월 +29.1조원)이 상당폭 증가한 반면, 자산운용사(+23.5조원 → -11.1조원)는 감소 전환

※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

*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수치는 통화정책 필요상 작성된 속보치이며 공식 통계치와 포괄범위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 이승엽 Tel : (02) 759-4402
과장 김민정 (02) 759-4516

공보관 : Tel (02) 759-4028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(붙임)

1 금리 및 주가

- 국고채금리는 중동불안 지속 및 국제유가 상승,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강화,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큰 폭 상승*하였다가 채권 시장 수급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

* 국고채 3년물은 9.28일 4.12%, 10년물은 9.15일 4.60%로 각각 연중 최고치를 기록

- 주요 단기시장금리(3개월)는 8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MMF 수신 감소, 은행권의 자금조달 확대 등으로 상승

-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, 중동전쟁 전개 상황, 주요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등락하다가 10월 들어 AI 투자 둔화 및 반도체 경쟁심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

시장금리 및 주가

(기말기준, %, %p)

	24.12월말	25.12월말	26.7월말	8월말 (A)	9월말	10.14일 (B)	B - A
■ 국고채(3년)	2.60	2.95	3.76	3.84	4.01	3.88	0.04
■ 국고채(10년)	2.86	3.39	4.26	4.31	4.41	4.26	-0.05
■ 미국채(10년)	4.57	4.17	4.73	4.75	5.28	5.21 ³⁾	0.46
■ 회사채(3년, AA-) ¹⁾	3.28	3.46	4.46	4.52	4.68	4.56	0.04
■ 회사채(3년, A-) ¹⁾	4.28	4.59	5.56	5.63	5.80	5.67	0.04
■ 회사채(3년, BBB+) ¹⁾	6.64	6.88	7.83	7.90	8.06	7.94	0.04
■ 통안증권(91일) ¹⁾	2.96	2.41	2.79	3.02	3.22	3.21	0.19
■ 은행채(3개월) ¹⁾	3.34	2.81	2.99	3.21	3.43	3.39	0.18
■ CD(91일)	3.39	2.81	2.95	3.12	3.22	3.25	0.13
■ CP(A1, 91일)	3.58	3.30	3.17	3.25	3.42	3.66	0.41
■ KOFR(익일물) ²⁾	3.06	2.55	2.60	2.79	3.05	3.02	0.23
■ 코스피	2,399	4,214	6,595	6,820	6,838	6,009	-11.9(%)
■ 코스닥	678	925	720	834	856	824	+1.2(%)

주: 1) 민간채권평가사 4사 평균

2) KOFR(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), 기간중 평균(26.10월은 10.1~13일 기준)

3) 10.13일 기준

□ 9월 은행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상당폭 감소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(26.8월 +3.5조원 → 9월 +0.6조원; 25.9월 +1.9조원)

○ 주택담보대출(+4.1조원 → +2.9조원)은 전세거래 둔화세 지속*,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

* 전세자금대출 증감(조원): 26.7월 -0.8 → 8월 -0.7 → 9월 -0.9(25.9월 -0.2)

○ 기타대출(-0.6조원 → -2.3조원)은 개인의 주식투자 감소와 분기말 부실 채권 매·상각, 명절 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감소폭이 확대

	26.4월	5월	6월	7월	8월	9월
▪ 아파트 매매거래량(전국, 만호) ¹⁾	4.9	4.9	4.5	4.2	3.4	..
▪ " 매매거래량(수도권, 만호) ¹⁾	2.7	2.8	2.4	2.2	1.7	..
▪ " 매매거래량(서울, 천호) ¹⁾	8.7	9.0	5.3	5.9	3.6	..
▪ " 전세거래량(전국, 만호) ¹⁾	4.1	4.0	3.9	3.8	3.3	..
▪ " 분양물량 (전국, ")	2.6	2.5	2.3	1.9	1.9	2.4
▪ " 입주물량 (전국, ")	1.8	1.4	1.4	1.6	1.9	1.4

주: 1) 계약일 기준(10.14일 조회기준, 계약해제건 제외)

자료: 국토교통부, 부동산114

은행 가계대출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024		2025		2026			26.9월 말 잔액	
	1~9월	9월	1~9월	9월	1~9월	7월	8월		9월
■ 은행 가계대출 ¹⁾	40.7	5.6	29.2	1.9	25.2	5.5	3.5	0.6	1,198.9
(주택담보대출 ²⁾)	46.4	6.1	30.2	2.5	20.3	3.5	4.1	2.9	955.5
(기타대출 ³⁾)	-5.5	-0.5	-0.8	-0.5	4.9	2.0	-0.6	-2.3	242.6

주: 1) 예금은행(은행신탁 포함) 기준,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

2) 전세자금대출, 이주비·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,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 및 이차보전 방식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포함

3) 일반신용대출, 신용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대출), 상업용부동산(상가·오피스텔 등) 담보대출, 기타대출(예·적금담보대출, 주식담보대출 등) 등으로 구성

- 9월 은행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
(26.8월 +9.7조원 → 9월 +10.7조원; 25.9월 +5.3조원)
- 대기업대출(+4.9조원 → +7.5조원)은 은행들의 대출영업 강화가 이어진 가운데 회사채 상환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
 - 중소기업대출(+4.8조원 → +3.2조원)은 추석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지속되었으나 분기말 부실채권 매·상각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
- 회사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발행 부담이 이어진 가운데 만기 도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순상환 규모가 확대(-0.9조원 → -3.4조원)
- CP·단기사채(+4.1조원 → -0.1조원)도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부채 상환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으며, 주식(0.5조원 → 0.3조원)은 유상증자 규모가 줄어들며 증가폭이 소폭 축소

기업 자금조달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024		2025		2026				26.9월말 잔액
	1~9월	9월	1~9월	9월	1~9월	7월	8월	9월	
■ 은행 기업대출(원화) ¹⁾	68.5	4.3	45.0	5.3	77.6	7.7	9.7	10.7	1,441.5
(대 기 업)	27.9	0.8	19.8	1.3	41.7	3.8	4.9	7.5	336.7
(중소기업)	40.5	3.5	25.2	4.0	35.9	3.9	4.8	3.2	1,104.9
<중소법인>	34.8	3.3	22.3	3.5	32.6	3.4	4.5	3.4	643.2
<개인사업자>	5.7	0.3	2.9	0.5	3.3	0.5	0.4	-0.2	461.6
■ 회사채 순발행 ²⁾	-0.9	-1.3	5.7	1.8	-20.6	-1.9	-0.9	-3.4	..
■ CP·단기사채 순발행 ³⁾	4.6	1.1	6.5	-1.5	16.5	4.0	4.1	-0.1	69.6
■ 주식 발행 ⁴⁾	5.8	0.1	10.8	0.3	5.0	1.5	0.5	0.3	..

주: 1) 예금은행(은행신탁 포함) 기준, 금융업 대출 및 일부 정책자금 대출(농축수산자금) 제외

2) 공모회사채 기준(ABS 제외, P-CBO 포함) 3) 일반기업 기준

4)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합계

- 9월 은행 수신은 주로 계절적 요인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(26.8월 +0.1조원 → 9월 +29.1조원; 25.9월 +31.9조원)
- 수시입출식예금(-14.0조원 → +24.7조원)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상당폭 증가
 - 정기예금(+20.3조원 → +2.1조원)은 일부 대기업 예금의 만기도래 확대에도 은행들의 자금유치 노력이 이어지고 가계자금의 예치도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
- 자산운용사 수신은 분기말 MMF가 큰 폭 유출되면서 감소 전환(26.8월 +23.5조원 → 9월 -11.1조원; 25.9월 -4.2조원)
- MMF(+5.6조원 → -25.6조원)는 법인자금이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 수시입출식예금 등으로 유출되면서 상당폭 감소
 - 채권형펀드(-0.3조원 → +1.0조원)는 소폭 증가 전환하였으며, 주식형펀드(+15.5조원 → +5.1조원)는 증가폭이 축소

주요 금융기관 수신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024		2025		2026				26.9월말 잔액
	1~9월	9월	1~9월	9월	1~9월	7월	8월	9월	
■ 은행 ¹⁾	67.9	18.9	78.8	31.9	86.9	-30.0	0.1	29.1	2,621.7
(수시입출식 ²⁾)	-2.7	11.0	47.2	35.5	-28.2	-80.8	-14.0	24.7	966.8
(정기예금)	70.0	6.3	34.9	-0.4	104.6	42.3	20.3	2.1	1,166.1
(은행채)	12.8	7.2	-5.7	-1.4	30.2	6.3	6.1	5.7	371.3
(C D)	-8.0	-1.6	-4.9	-0.4	-14.6	-5.6	-2.9	-1.7	47.8
■ 자산운용사 ³⁾	102.2	-14.6	184.6	-4.2	255.3	-42.8	23.5	-11.1	1,538.3
(MMF)	6.3	-19.3	30.2	-28.0	38.1	27.2	5.6	-25.6	231.6
<법 인>	4.3	-19.2	27.6	-28.1	38.5	27.9	5.7	-25.4	210.3
(채권형)	33.8	-0.3	55.5	0.2	0.2	0.7	-0.3	1.0	213.9
(주식형)	15.5	1.2	43.9	10.9	134.6	-56.2	15.5	5.1	343.2
(혼합형)	5.0	0.3	3.5	1.1	13.3	-0.8	0.6	-0.3	47.3
(기타펀드 ⁴⁾)	41.5	3.5	51.6	11.5	69.1	-13.8	2.1	8.6	702.3
<파생형>	9.6	-0.2	11.5	4.2	19.5	-19.3	-0.6	1.6	119.8

주: 1) 은행·중앙정부·비거주자예금 제외 2) 실세요구불예금 포함
 3) 증권사 사모펀드 포함. 평가액이 반영된 순자산총액(NAV) 기준의 설정원본 기준
 4) 파생상품·부동산·재간접·특별자산·혼합자산펀드

<참고 1>

은행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6.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26.9월말 잔액
은행 가계대출¹⁾	2.1	6.9	7.6	5.5	3.5	0.6	1,198.9
주택담보대출 ²⁾	2.7	3.2	4.3	3.5	4.1	2.9	955.5
기타대출 ³⁾	-0.6	3.7	3.3	2.0	-0.6	-2.3	242.6
은행 기업대출¹⁾	10.7	10.6	5.1	7.7	9.7	10.7	1,441.5
대기업	5.0	5.2	3.4	3.8	4.9	7.5	336.7
중소기업	5.7	5.4	1.7	3.9	4.8	3.2	1,104.9
<중소법인>	4.9	4.8	1.9	3.4	4.5	3.4	643.2
<개인사업자>	0.8	0.6	-0.3	0.5	0.4	-0.2	461.6
회사채 순발행⁴⁾	-3.9	-1.1	-2.9	-1.9	-0.9	-3.4	-
CP·단기사채 순발행⁵⁾	4.9	-2.1	-1.7	4.0	4.1	-0.1	69.6

주: 1) 예금은행(은행신탁 포함) 기준, 가계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

2) 전세자금대출, 이주비·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,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 및 이차보전 방식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포함

3) 일반신용대출, 신용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대출), 상업용부동산(상가·오피스텔 등) 담보대출, 기타대출(예·적금담보대출, 주식담보대출 등) 등으로 구성

4) 공모회사채 기준(ABS 제외, P-CBO 포함)

5) 일반기업 기준

<참고 2>

주요 금융기관 수신

(기간중 잔액 증감, 조원)

	26.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26.9월말 잔액
은행계정¹⁾	-6.8	48.8	28.8	-30.0	0.1	29.1	2,621.7
실세요구불예금	-6.5	14.4	11.4	-29.0	-18.9	12.9	320.1
저축성예금	-7.1	34.1	14.7	-11.9	25.0	15.1	1,879.8
(정기예금)	4.7	15.8	14.2	42.3	20.3	2.1	1,166.1
(수시입출식)	-12.3	18.3	0.8	-51.9	4.9	11.8	646.6
은행채	-1.4	2.8	5.2	6.3	6.1	5.7	371.3
CD+RP+표지어음	8.2	-2.5	-2.5	4.6	-12.2	-4.6	50.5
자산운용사²⁾	99.6	86.4	-11.7	-42.8	23.5	-11.1	1,538.3
M M F	24.5	1.8	-29.3	27.2	5.6	-25.6	231.6
채권형펀드	3.6	1.9	-4.8	0.7	-0.3	1.0	213.9
주식형펀드	55.7	58.8	3.5	-56.2	15.5	5.1	343.2
혼합형펀드	2.9	2.9	3.4	-0.8	0.6	-0.3	47.3
기타펀드 ³⁾	12.9	21.0	15.5	-13.8	2.1	8.6	702.3
은행신탁	12.7	6.0	-11.2	26.6	0.0	-25.3	461.5
특정금전신탁	12.4	5.7	-12.6	27.2	-0.5	-26.2	220.9
종금사	1.1	-0.4	-0.6	1.0	0.0	0.2	23.1
발행어음	1.6	-0.6	-1.3	1.8	0.2	-0.3	16.3
C M A	-0.4	0.1	0.7	-0.9	-0.2	0.5	6.8
(매출어음)	2.8	-0.2	-1.9	2.1	0.6	-1.7	29.2
우체국예금	1.3	-0.5	0.2	1.2	-0.6	0.7	94.4
증권사투자자예탁금	14.5	6.8	-10.0	-17.5	-4.4	5.0	104.7

주: 1) 은행·중앙정부·비거주자예금 제외 기준

2) 증권사 사모펀드 포함. 평가액이 반영된 순자산총액(NAV) 기준의 설정원본 기준

3) 파생상품·부동산·재간접·특별자산·혼합자산 펀드